

# 광주서 전두환 표지석 밟고 봉하선 “盧의 길 가겠다”

이재명·호남 횡단 본선 후보

5·18 민주묘지 참배

“전두환은 반란수괴·학살범”

전두환 옹호 윤석열 맹 비난

권양숙 “남편과 가장 닮은 후보”

‘대장동 국감’을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영·호남을 가로지르며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섰다.

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호남과 민주주의 상징인 광주 5·18 묘역을 참배, ‘전두환 옹호’ 발언과 ‘개 사과’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견제 수위를 한껏 높였다. 이어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가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민주세력의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는 점도 부각했다.

이 후보는 이날 행보는 ‘대장동 정국’ 정면돌파를 위해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미뤄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,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이후 사실상 첫 일정으로서 주목을 받았다.

이 후보는 5·18 민주묘지에서는 “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”라며 “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와 인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다짐해야 하는 곳”이라고 말했다.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의 ‘전두환 옹호 발언’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

질문에 “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뭐 특별히 놀라지가 않다”고 밝혔다. 그러면서 “전두환 씨는 내란범죄의 수괴이고 집단학살범”이라며 “(윤 전 총장은)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러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갖는 업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”이라고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. 윤 전 총장이 “군사 쿠데타와 5·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”고 말한 것을 겨냥해 “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”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”고 비교기도 했다.

특히 이 후보는 이날 애초 예정에 없던 민주열사 묘역도 참배했다. 이 후보는 민주열사 묘역 입구에 있는 ‘전두환 표지석’을 두발로 밟으며 “윤 후보님은 존경하는 분이러 밟기 어려우셨을 것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. 이 표지석은 1982년 전 전 대통령이 담양을 방문해 세운 민박 기념비를 세운 것을 부순 뒤 묘역으로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을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.

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전 총장이 SNS에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것을 겨냥해 “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반성논쟁 2차 가해를 남발 중”이라며 “한국판 ‘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’이 필요하다”고 비난했다.

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봉화마을을 둘러 “5·18의 진상을 알고 나서 인생을 바꿨다면,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권변호사와 정치 진출의 길을 열어주셨다”며 “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”고 했다. 약 50분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에는 권 여사가 “노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”라고 말한 사실을 동석한 전제수 의원이 전하기도 했다.

이 후보의 이날 행보는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 나서는 동시에, 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친노·친문계와의 화합적 결합을 한층 강



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·18 묘역(민족민주열사묘역)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며, 묘역 입구 땅에 밟은 전두환 비석을 밟고 있다. <광주·전남 사진 기자단>

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. 이 후보는 이날 일정을 시작으로 본선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. 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## “학살자 찬양하고 국민을 개 취급하나”

당내 경쟁 주자들 ‘전두환 옹호·개 사과’ 논란 윤석열 맹폭

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‘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’과 ‘반려견 사과 사진’으로 야당 진영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.

당내 경쟁 주자들은 ‘불안한 후보’ 이미지를 부각하며 판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. “제2의 전두환을 원하나”(유승민), “히틀러도 찬양하니”(홍준표) 등의 당내 공세가 쏟아지는 상황이다.

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은 24일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“이미 ‘개 사과’ (사진)로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났고, 쫄 세우기 구태 정치의 전행이 되어 버렸다”고 말했다.

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“공천은 엄연히 당 대표의 권한인데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면서 선대위에 뒤늦게 영입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인가”라며 이같이 직격했다.

이날 윤 전 총장 캠프가 국민의힘 김태호·박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,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을 영입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.

홍 의원은 이어 “마치 당을 장악한 듯이 선관위에도 압박을 가하고 참 어이없는 ‘검찰당’을 만들

고 있다”며 “그러다가 한 방에 흑 가는 것이 정치”라고 주장했다. 또 “본노면 민심과 당심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”이라며 “민심은 천심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특히 ‘반려견 SNS’ 게시물이 치명타가 됐다. 누군가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건네주는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, 같은 날 윤 전 총장의 사과와 맞물려 ‘국민을 개 취급한 것인가’라는 비난이 쏟아졌다.

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. 반려견 동공에 윤 전 총장 부부 모습이 비친다는 주장, 해시태그에 전라도·도민 비하 용어가 쓰였다는 의혹과 맞물려 수많은 밈(meme·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)이 양산됐다.

캠프 측은 SNS 담당 실무진의 판단 착오라며 사과하고 계정을 폐쇄했다. 윤 전 총장도 즉각 본인의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.

한편, 윤 전 총장은 내달 초 광주를 방문하고 5·18묘역을 참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광주 시민들을 대변하고 진솔한 사과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문 대통령 로마 G20 참석… 교황과 한반도 평화 논의

3년전 불발 교황 방북 거듭 제안  
28일부터 5일간 유럽 3개국 방문

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,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.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황에게 방북을 거듭 제안하는 방안을 포함, 임기 말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.

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,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에 참석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은 등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.

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7박9일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. 우선 교황청 공식 방문은 29일 진행

되며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한 뒤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난다.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. 교황은 당시 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하자 “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”고 해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.

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다시 한번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. 이번 교황청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.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과 같은 날인 29일 교황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. 한미 정상회담 혹은 약식회담이 성사될 경우,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연결고리로 한 대북 대화추진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.

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면담 후에는 30일부터 로마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(주요20개국) 정상회의에 참석한다.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인

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주요국 정상과 논의하며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.

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.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,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%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영국에 이어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국빈 방문,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다. 또한 아데리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슬로바키아·체코·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. 비셰그라드 그룹은 체코, 슬로바키아, 폴란드,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로, 문 대통령은 이 국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.

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

부모님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까지

# 연결됩니다 행복한지금

부모님 걱정 함께 덜어주는

가족같은 국민연금으로

나의 걱정은 가벼워지고

가족의 행복은 늘어납니다

